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응답과 반응을 전해준 디도를 만난 곳은 빌립보에서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두 번째 서신을 곧 보내게 했습니다. 바울은 곧 고린도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현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려고 현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난국을 위해 그들이 한 풍성한 연보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에서 우리의 현금을 관리하는 규칙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현금을 관리하는 분명한 규칙을 줍니다.

그래서 8장에서 우리는 현금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의 일부를 공부했습니다. 9장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바울이 8장에서 현금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도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런 관대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로다.

2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나인들에게 가야아에서는 일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펍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갖고 있는 주고자 하는 열심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헌금하게 하였도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면서, 그는 그들로 이러한 헌금하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실 나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일년 전부터 자원하여 헌금하기를 원하는 너희의 열심을 벌써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관대한 지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도 분발되었도다.

3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나는 너희가 얼마나 관대히 주는 자들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을 미리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헌금할 준비를 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갔을 때 너희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창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 혹 마게도나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내가 갈 때 마게도나 사람도 몇이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 대해서 자랑을 하였도다.

혹 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관대한 사람인가를 말한 것으로 인해 내가 부끄러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형제들을 너희에게 미리 보내어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준비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나의 대리인들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라.

5 이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나는 그들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고

있노라. 내가 곧 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그들이 먼저 가서 연보를 걷도록 하기 위함이라. 바울이 전에도 말했듯이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연보도 걷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형제들을 미리 보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들을 걸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보낸 그들이 거기 갈 것이라. 나는 그들을 권면하여 나 보다 먼저 가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 처리하도록 하였노라.

6 이것이, (헌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금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1편 1-2절,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며,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하시리로다.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염려하여 그들에게 주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4-25절에,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재미있는 역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당신의 것을 나누고 흠뜨리지만 당신은 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껴도 당신은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주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되어 주는 그 말로 주께서 너희에게 도로 돌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더 줌으로 내가 더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줄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주지 않을 여유가 있을까요?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실은 아마도 당신이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분께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학개의 예언에 (학개서 1:6절) 사람들이 궁지에 빠져있었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많이 벌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돈을 전대에 넣지만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둘지라도 항상 부족하도다. 그는 말하기를 무슨 연고인고? 주의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것은 그들이 오직 그들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그들 자신들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주께 드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드리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축복을 보류하셨습니다. 이것을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꾸짖은 것이고 또 왜 그들이 재정적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이유를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십일조와 헌금을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반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헌금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젊었을 때 경험으로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내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동부로 다시 돌아가 미조리 주에서 전도 사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나에게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학교비용과 졸업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었고 미조리로 건너갈 여행비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선교 부흥 집회에 갔습니다. 푸엘토 리코에서 온 한 선교사가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5불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길 그 5불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걸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것 전부였던 그 5불을 헌금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고,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졌던 전부였지만 주께서 약속하시길 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한 보험회사의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년 전 내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내가 보고서를 기재했었던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사고를 기억합니까?” “오!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자동차가 간선도로를 가로질러 우리 쪽 선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차를 박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급정지를 했고 갑자기 뛰어든 차는 내 차를 박는 대신에 내 앞차를 박고는 튀겨 나가 그리피스 공원 쪽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내 앞차 여자에게 내 명함을 주고는 내가 바로 뒤에 있었고 나는 내가 부딪힐 줄 알았었다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어린 딸이 괜찮은가를 확인했고 그런 다음 나는 그 남자가 괜찮은가 싶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나오면서 온갖 욕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집에 갔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차 사고가 있었음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험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말하기를,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선을 넘어와 그를 박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세상에, 전혀 사실과 정 반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목격자들은 다른 주로 이사를 갔고 나만이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재판 날짜를 말해주면서 거기 와서 증인이 되 줄 수 있는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나는 미조리로 가서 그곳에서 집회를 시작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당신만이 유일한 증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곳으로 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준다면 며칠만이라도 미조리로 가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냐?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헌금의 원리의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드렸고, 주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내가 미조리로 돌아가는 모든 비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세워놓으셨고 그것이 정말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헌금을 위한 최상의 동기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이것이 헌금의 동기로 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재물을 주는 자들을 위해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이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잠깐만,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받을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 많이 주면 더 적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주면 나는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은 나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밀 농사를 한다고 할 때, 온 밭에 밀을 조금만 뿌려 놓는다면, 추수 날에 당신은 밭에서 적은 양의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많은 밀을 뿌리면, 추수 날에 당신은 많은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헌금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이 적게 드리면 적게 얻을 것이고 많이 드리면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드리는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돈을 빌려서 헌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비천한 정책이고 서투른 신학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네가 줄 때에는 나쁜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보라,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네가 드릴 때에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드린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첫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었을 때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건축할 모든 재료나 물질 등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헌금을 걷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주의 전은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재료는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을 때, 다윗은 역대상 29장 10-15절에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맡기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한다고 했고, 15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와 타국인들이오니,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소유니이다. 나의 하나님여, 나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즐거이(willingly)” 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드리는데 압력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즐거운 마음에서 드려야합니다! 이것이 주께 드리는데 있어서의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정한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야합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를 드려야할지 또 어떤 제시나 요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과 당신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이 헌금하도록 압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9절) 우리에게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하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내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드린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께 드린 후 말하기를, 내가 감동되어서 할 수없이 헌금을 했다고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슬퍼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기를 아까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리조나 주에 있었을 때,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프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사관이 나의 아내와 나를 교회가 끝난 후에 주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맛있는 팟 로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 맛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다시 권하므로 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두 번째의 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팟 로스트를 사면 보통 일주일간 먹을 것은 남았었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히 일주일도 못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로 내뺄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너무나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나는 나를 그의 집에 초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가 나를 초대했으며, 내가 두 번씩이나 먹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 그는 불평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요구했느냐? 너나 가져라!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노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헌금의 원칙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어떤 압력 하에 필요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너희가 마음에 정한대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9 기록한바 (바울은 시편 112: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니라’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의로운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흠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짧게 축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씨를 풍성케 하소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주께 마음에 정한대로 드릴 때 영적인 것들로 더 풍성케 하소서.

11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오, 나는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잔이 넘치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나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헌금한 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도다. 너희의 풍성한 연보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었던 재정적 어려움도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식품을 살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헌금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식품을 사는 등,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헌금이 도움을 받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가는 너희들의 풍성한 연보를 받을 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주는 이 헌금을 우리가 전해 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희의 관대한 헌금을 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14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보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하나의 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모두가 고통을 당하며, 또 한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칭찬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단이 수단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수량의 식품과 의료용품, 등을 사기 위해 헌금한 수 천 달러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슬렘으로부터 온갖 참으로 지독한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단에 있는 그들을 위해 걸었던 헌금을 받으면서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며 갈보리 채플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와 너희의 관용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 곤경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냈을 때, 세계의 여러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것같이 수단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압력이나 요청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정한대로 드리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지요!

우리는 매달 이사회를 갖고 지출 재정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인해 우리는 멈추고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우리는 온 세계 곳곳에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람들이 곤경에 있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 받습니다. 필리핀에서 굉장한 화산 폭발로 인해 온 마을이 쓸려내려 갔을 때,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식량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세계 곳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관대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헌금을 가져감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같보리 채플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경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의 성경공부 테이프를 전해 받았던 시베리아에 있는 그룹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시다. 그곳에서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매주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와!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니! 그들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베리아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번 주에 시베리아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몇이나 기도했습니까? 또한 굉장한 핍박 가운데에 있는 수단의 우리 지체들을 얼마나 잊고 삼니까? 그들은 매일 죽음과 삶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중국에서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인도에서의 핍박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한 마을로 들어가면 그들은 매를 맞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에 있는 믿는 자들의 핍박,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통치하에 있는 이라크에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담 후세인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교 통치하의 이란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은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돕는 당신의 관용함에서부터 오는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 장을 끝맺습니다. 그는 이 장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드리는 것에 대한 진정한 동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셨고, 나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즉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 즉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말했듯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모두 당신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것을 다시 돌려 드릴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서는 일천 산 위의 목축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이 공핍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고마움을 당신께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하심과, 축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헌물로 표현하는 것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고마운 마음에서 드립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즐겨 내는 자들이 드린 그 선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